

2022 신년가정예배

2022/1/1(토)

찬	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찬516장) 시선 (내게로 부터 눈을 들어)	다	함	계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1:14-15, 사도행전 1:3-8	다 함 계
말	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	가	족	중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계
새	해	인	사	서로 새해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 계

네델란드 여행자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네 프랑크의 집입니다.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바로 독일 비밀경찰을 피해 유대인 가족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13살의 어린 소녀 안네는 일기를 썼습니다. 안네의 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이 혼돈스럽고, 공포와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와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함께 모여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나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4)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 간절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성령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아로 증거했으며,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공동체(사도행전 20:28)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비밀 병기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고자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2.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는 나라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며 모든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비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회개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완전히 되돌이켜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5)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을 통해 일하고 섬겨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새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바라보는 나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은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중보자**(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